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9.56	↓ 코스닥	708.21
	(-26.22)		(-9.68)
↑ 금리 (연이자율)	2.664	↑ 환율 (원/달러)	1470.35
	(+0.103)		(+5.35)



초코파이 신화서 바이오 혁신 ADC 개발로 글로벌 제2 도약

〈항체약물접합체〉

영리더 경영 리포트

유통·식품업계의 오너 3세 경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 오리온, 농심 등은 3세 경영인을 고위직에 기용했다. 또 한화 오너가 3세 김동선 부사장과 전병우 삼양라운즈스퀘어 전략기획부문장(상무)도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MZ 오너'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 오너 1, 2세대가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왔다면, 이들 오너 3세대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바이오와 소재 등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시리즈를 통해 업계 오너 3세대가 주도하는 사업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1 오리온 담서원 전무

입사 3년 5개월 만에 전무 승진 리가캠바이오 인수 직접 참여 ADC 개발로 제약·바이오 공략 H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도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은 1956년 설립 이후 초코파이를 필두로 '꼬북칩' '초코송이' '후레쉬베리' 등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제과산업에 이끌려왔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 소비가 침체되자



담서원 전무
오리온 한국 법인 경영지원팀

해외 사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7년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음료, 간편대용식, 바이오 등 3대 신규 사업의 성장체제를 확립해 제2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담철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담서원 전무는 오리온의 차세대 리더로서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신사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리가캠바이오 인수를 추진하며 기업의 체질전환에 기여했다.

오리온은 '2025년 임원정기인사'를 통해 한국법인 경영지원팀 담서원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1989년생인 담 전무는 뉴욕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 베이징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카카오엔

터프라이즈에서 2년간 근무한 뒤 2021년 오리온 경영관리파트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2023년 경영지원팀 상무로 승진했으며, 입사 후 3년 5개월만에 전무를 맡았다.

담서원 전무는 그룹의 사업전략 수립과 관리, 글로벌 사업 지원, 인수중 사업 등 경영전반에 걸친 실무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계열사로 편입된 리가캠바이오의 사내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오리온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RP) 구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1월 약 5500억원을 들여 리가캠바이오 지분 25%를 확보했으며 3월 지분 25.73%에 대한 주식대금 5485억원을 지불하고 리가캠바이오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실제로 담 전무는 인수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가캠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ADC(항체약물접합체)를 개발하는 회사로, ADC는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분야다.

오리온은 리가캠바이오 인수를 통해 그룹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리가캠바이오의 핵심 후보물질 중 일부는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무서운 외식물가... "점심 먹기 겁나네"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앞에 판매되는 음식 종류가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했다.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성비 좋기로 알려진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등도 가격이 올랐고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물가도 상승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외식 메뉴 가격 상승과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

'3자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 崔 대행, 경제4법 처리 당부

최상목, 여야 대표 차례로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 통과 촉구

정부와 여당·야당으로 꾸려지는 이른바 '3자 국정협의회'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 협의회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대행 체제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비대위원장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무

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행은 "제1 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을 거론했다.

권비대위원장과 이대표 역시 최대행의 제의에 화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계류법안 7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조세개편 과제 3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고, 비상시국 속에서도 여야의 합심을 촉구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트럼프 눈치보는 빅테크, DEI 정책 줄폐기

대통령 취임 앞두고 관계개선 총력
메타 'DEI 정책' 종료, 애플은 유지
아마존도 다양성 확보 축소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변화에 발맞춰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성·공정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 DEI)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EI 정책 폐지 움직임...정치적 변화 수용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

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메타는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고용, 훈련, 공급 업체 선정 등에 시행하던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역시 지난달 직원 메모를 통해 2024년 말까지 다양성 확보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EI 정책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 흐름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도입한 것으로, 인종,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판결한 이후 보수 진영은 DEI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다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DEI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반면, 애플은 DE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메트로 한줄뉴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박찬대, 암참 회장 만나 "민주, 한미동맹 누구보다 중시"
/사진 뉴스

▲이준석 "尹 투항하라" 확성기 틀자... LA산불 메시지 낸 건 존재과시용"
▲여, 의총서 비상경제특검 논의... "내란·외환특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재명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사임... "개인·로펌 사정"
▲이준석, 허은아 향해 "느낌 말고 구체적 사안 얘기하면 돼"